



부안군 동진면, 면민과 ‘송년 화합 한마당’ 개최

부안군 동진면(면장최정애)은 10일 부안관광호텔에서 2025년을 결산하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동진면 송년 화합 한마당’을 면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색소폰 연주와 고고장구 공연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진면 발전을 위해 힘써온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재 동진면 이장협의회장은 “한 해 동안 동진면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과 함께 송년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 자리가 내내에도 동진면이 더 활기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제 진봉면에 김기흥 · 최승훈씨 백미 200포 기탁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김기흥씨와 최승훈씨가 1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각 백미 10kg 100포씩 총 200포(5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째 백미 기부를 한 김기흥씨와 12년째 백미 기부를 한 최승훈씨는 “뜻은 비로써 수확이 쉽지 않았지만 직접 재배한 쌀을 이웃들에게 배울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따뜻한 밥 한 공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석 진봉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좋은 쌀을 기부해 주시는 김기흥씨와 최승훈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마을 전체로 퍼져 진봉면에 나눔의 물결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봉면 관내 40개 경로당과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평지평선한우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원평청보리지평선한우촌(대표 최미애)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해 따뜻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원평지평선한우촌은 평소에도 지역 행사 후원, 취약계층 반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성금 기탁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계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어진 것이다.

최미애 대표는 “가계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금산면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미지 금산면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값진 나눔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누며 도민과 상생

전북자치도, 공무원 ·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펼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소속 공무원 · 공무원 노동조합이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나눔 활동 중 하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송상재 공무원 노조위원장, 오광철 공무원 노조위원장,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전주시 전마동 일대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연탄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참석자들은 가파른 골목길과 협소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연탄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전달하며 겨울을 앞둔 이웃들의 따뜻한 난방을 도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연탄 1만 2천여 장을 전주연탄은행에 기탁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일회성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에 의미를 더했다.

송상재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추운 겨울을 잘 견디어 내셨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하고, 오광철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같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노사가 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로를 위한 마음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노동조합은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복지시설 급식봉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510만원 전달

남원시 도동동 통장협의회(회장 이거구)는 지난 9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웃돕기 성금 510만원을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평소에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거구 회장은 “지역 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통장들이 마음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이재철 동장은 “지역 사람을 살전해 주시는 통장협의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생활개선회,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 나눔 행사

남원시 생활개선회는 지난 9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생활개선회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7개 읍면동 · 직할 회원들이 참여, 고추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되었으며, 나눔 행사를 통해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시 생활개선회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체육회,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무주군체육회가 10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재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황인홍 무주군교육발전재장학재단 이사장과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재호 회장은 “장학금에 한 해 동안 무주군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대회 열기, 종목별 선수와 참가자들의 활력, 그리고 무주군체육회 회원들의 응원까지 모두 담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일등병부대찌개, 전북대병원에 발전후원금 전달... 22년째 이어온 나눔

전북대학교병원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일등병 부대찌개’가 병원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가운뎃에서 양종철 병원장,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430여만 원은 지난 11월 11일, 식당 개업기념일이자 ‘빼빼로 데이’에 방문한 손님들의 식사 수익 전액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한다.

일등병부대찌개는 2004년부터 매년 개업기념일 수익금을 기부하며 22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까지 전북대병원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4,800여만 원에 달한다.

초기에는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됐으며,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호스피스후원회를 통해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의 의료비 · 생계비 · 간병비와 보호자 및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다.



2024년부터는 병원 발전후원회를 통해 병원의 진료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규석 · 박진희 부부는 “22년 동안 저희 가게를 믿고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이 나눔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환자와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오랜 시간 이어온 따뜻한 나눔이 큰 희망을 만드는 귀중한 사례”라며 “기탁해주신 마음을 소중히 사용해 지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오삼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